

청년·AI·전통산업 아우르는 미래 전략 시동

익산시가 대담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산업·전통산업을 아우르는 성장 전략을 본격 실행에 옮기고 있다.

.....

김문혁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년경제국 출범 이후 시정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고 있다”며 “전입·정착·성장”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청년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는 그간 분산됐던 청년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청년경제국과 청년일자리를 신설했다. 취·창업 지원부터 주거·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청년경제국은 전입 청년 정착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청년창업 지원 상담·컨설팅 △청년 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달부터는 ‘다시, 익산’ 청년정책 브랜드를 정비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기회의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제8회 청년친화환경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청년정책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안팎으로 입증했다.

청년경제국은 청년정책과 더불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경제산업과에 ‘미래산업4계’를 신설하며, 국가 전략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발맞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개소 예정인 익산 AI 디지털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 (AX) 전환 △AI 기업 유치 및 육성 △원광대학교 연계 인재양성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농기계·농식품 등 지역 주력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제조·푸드테크 분야 신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전북권 AI 산업 생태계 확산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전통산업과’는 보석·석재·섬유 등 지역 연구 산업을 통합해 집중 육성한다. 시는 올해 익산귀금속제조업협동조합을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공동브랜드 ‘애드베네(ADDBENE)’ 판로 확대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선도형) 선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제4기 청년희망 네트워크 출범



김문혁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이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거뒀다.

특히 세계 최대 큐빅 임가공 기지로 명성을 쌓아온 익산 주얼리 산업은 이번 협동조합 출범을 계기로 제조기업 집적화와 청년 후계자 양성을 통해 산업·문화·관광이 결합된 K-주얼리 중심도시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문혁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청년경제국은 청년·AI·전통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을 본격 실행하고 있다”며 “청년이 정착하고, 신산업이 성장하며, 전통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출범 후 시정 새 동력 마련…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의지
전입 청년 정착지원 패키지 포함 창업 컨설팅 등 성과
이달부터 ‘다시, 익산’ 청년정책 브랜드 정비해 본격 가동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도 역량 집중·지역전통산업 육성



청년친화환경 종합대상



AI 전문가 초청 간담회



지역 전통산업 관련

청년 주도 익산, 문화·산업 축제 릴레이

19~20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등

익산시가 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시 조성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축제를 연이어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오는 19~20일 양일간 전북도와 익산시가 함께 준비하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토크콘서트, 청년 아티스트 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축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중년일자리센터 취업박람회,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창업페스티벌, 사회적경제 한마당도 함께 열려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인 19~20일 열리는 알뜰 축제는 올해 마지막 여름밤을 장식한다. 인기 가수 공연과 시민 노래자랑, 현장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행사장에서는 다이로움 카드 결제 시 10% 추가 적립, 전북도민사랑증 지참자 혜택, 상권 내 영수증 이벤트 등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도 병행된다.

익산의 대표 야간 축제인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는 ‘미스터리 연구소, 끝나지 않는 실험’을 주제로 몰입형 공포 체험을 비롯해 호러 미디어파사드, 호러 코스프레 대회, 호러 플래시몹 챌린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축제장에는 익산 대표 홀로그램 기업들이 참가하는 ‘홀로그램 B2B관’이 운영돼 일반 관람객은 물론 업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전통산업 분야의 축제도 이어진다. 제27회

전국 돌문화산업전은 ‘돌아온 돌잔치, 돌돌잔치’를 주제로 채석장 투어, 중장비 체험, 반려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축제로 꾸며진다.

또한 보석 분야에서는 주얼리 뿌리 기능경기대전 및 디자인 공모전이 개최돼 전국의 장인과 학생들이 기술을 겨루고, 익산 공동브랜드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혁 청년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년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청년의 꿈과 도전이 익산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추석맞이

부안로컬푸드직매장

특판행사

9월 25일(목) ~ 10월 5일(일) 11일간

秋夕

福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